

#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효과 요인 및 상담과정 비교분석

—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

심혜숙      이정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비행청소년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보고 상담회기평가를 통해 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깊이와 순조로움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 전문학교(P소년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극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을 각각 12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씩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은 5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자기이해, 실존적 요인, 보편성 요인의 순으로 10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희망의고취, 정화, 실존적요인의 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심리극 집단에서는 깊이와 순조로움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보다 깊이 있고 순조롭게 평가하였다. 또한 깊이와 순조로움이 정적인 상관추세를 보인다. 둘째,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은 5회기 후에는 실존적 요인, 보편성, 집단응집력, 가족재구조화, 희망의고취 요인의 순으로, 10회기 후에는 보편성, 실존적요인, 가족재구조화, 이타주의, 자기이해의 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집단원들은 전반적으로 깊이 있고 순조롭게 회기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깊이와 순조로움의 평가가 전반부와 후반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깊이와 순조로움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순위차를 내어보면 5회기 후에 측정한 순위들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10회기 후에 측정한 상담효과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회기평가를 비교해 보면 심리극 집단이 사회극 집단보다 깊이와 순조로움의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청소년 비행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흉악범 중 청소년의 흉악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1995). 그리고 대부분이 사소한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 보편화 경향, 성인범죄에 비하여 공범률이 현저히 높은 집단화 경향, 극심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화 경향 및 자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동일, 1996; 심용철, 1996; 청소년 개발원, 1993).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자신은 물론 부모·교사·친구등 주변사람들과,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청소년 대화의 광장b, 1996).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낮은 자아개념, 감정과 욕구의 표현 서툰, 관계형성능력의 부족, 높은 충동성, 자기규제성의 부족,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욕구불만의 누적, 지각의 비현실성, 동기유발의 결여, 목적의식의 결핍, 가치관 혼란, 발달의 부조화, 높은 열등감, 자주성과 책임감의 결여, 배타성 및 불신감 등으로 나타난다(안창일, 1987; 김진남, 1990; 원호택, 1991; 이해원, 1992; 송종용, 1996; 유종관, 1996; 정혜승, 1996;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b 등). 특히, 일단 한번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재비행할 확률이 높고(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a), 청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형사정책 연구, 1995)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력활동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조력활동의 하나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들 수 있다. 현재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에는 청소년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성 순

화 프로그램, 자기인식 프로그램,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 재발방지 훈련프로그램, 자아성장 프로그램, 심리극,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적성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a). 이런 프로그램들 중 특히 심리극과 사회극은 행동 중심적이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행동화 경향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심리극은 집단의 심층에 작용하는 치료방법으로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집단의 행동에 의한 집단 내에서의 집단에 의해 집단과 함께 행하는 집단치료의 한 형태이다. 심리극은 그 진행에 있어서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 개별적인 형태로 취급한다. 즉, 주인공이 자기자신의 생활장면을 보조자아의 도움을 받아서 집단 앞에서 연기하면 집단은 주인공과 함께 그 장면을 "생활하고" 반응하게 된다(Blatner, 1988). 따라서 심리극은 문제를 제시한 주인공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에게도 좋은 치료적 경험이 된다(박상미, 1991). 요약하면, 심리극은 개인의 실제생활, 좌절된 상황, 자기실현의 소망 등 모든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자기활동을 회복하며 행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신을 개발하는(Moreno, 1977) 집단상담의 한 형태이다.

심리극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심리극은 입원환자, 외래환자, 청소년, 비행청소년 및 자기성장집단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되었고, 자아강화, 충동성 및 공격성 감소, 역할훈련, 대인관계기술 증진,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문제에 대한 통찰, 자유로운 감

정표현 및 감정정화, 정서적 갈등해소, 능동적인 갈등해결방식,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가치관 확립 등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김민정, 1996; 김정택, 심혜숙, 1991; 김유광, 1986; 김해열, 김해남, 김유광, 1992; 박상미, 1991; 성금영, 1983; 양재혁, 1996; 이경희, 1992; 이선화, 1992; 임계원·이근후, 1981; 한상순, 1990).

위의 연구들 중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극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idersky(1984)는 심리극이 행동화 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행동갈망(Acting-hunger)을 충족시켜주며, 잉여현실, 자발성, 창조성 및 역할확장 등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집단에서는 심리극과 같은 행동에 기초한 기술들이 주로 언어적이고 해석적인 기술들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Corder et al. 1981; Raubolt, 198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히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assner(1950)는 최소구류 유형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한 결과 심리극이 그들의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심리극이 비행청소년의 직업소개와 역할훈련에 도움이 됨을 밝혔고, 약물중독 비행청소년의 위기중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Deeth, 1970). Carpendberg & Sandberg(1985)는 자발성과 인지행동 기술을 결합한 심리극집단이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행동 경향을 감소하고 충동통제가 증가되었으며 대인관계의 향상 및 자아강도를 호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했다(이선화,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리극은 MMPI의 척도 9(경조증 Ma)가 일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김진남, 1990; 한영희, 1992; 유인옥, 1990) 비행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즉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행청소년의 높은 행동경향성은 문제가 되지만, 심리극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는 심리극의 기본가정인 행동의 표출(acting-out)을 통해 행동이 내재화(acting-in)되는 경로전환(Blatner, 1988)을 일으키는 긍정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극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미정 외(1986)는 여자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한 결과 MMPI의 사전 사후 검사결과는 변화가 없었지만 자신과 타인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보이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였다. 박상미(1991)는 심리극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혔고, 이선화(1992)는 구조화된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강화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민정(199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하여 갈등해결방식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식은 증대되고 갈등을 격하시키는 방식은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양재혁(1996)은 심리극 집단상담이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송종용(1995)은 여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하여 집단치료 과정변인을 평가하고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부모에 대한 이해, 자기행동에 대한 통찰, 감정정화와 부정적 감정의 감소, 긍정적 자기평가와 자신감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심리극과 기본이론 및 방법을 같이 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극(Sociodrama)이 있다. 사회극은 집단의 관계와 집단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행동방법이며(Moreno, 1977), 사회극은 참가자들이 동의한 사회적 문제들을 즉흥적으로 행위화하는 집단행동방법이다(Sternberg & Garcia, 1994).

사회극은 주로 교육적인 장면들 즉 학교, 사회단체, 역할 훈련집단 및 장애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의 장을 제공하고, 가치와 감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행동연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Sternberg & Garcia, 1994; Torrance, 1975). 그리고 감정정화, 통찰, 역할 훈련, 의사결정, 사회적·개인적 자각의 증진, 창조성 증진, 진로 의사결정, 문제해결력 증가, 유창성, 독창성, 발산적사고 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athis, 1980; Torrance, 1979; Wnssoeals & Johon, 1969). 특히 사회극은 역할놀이의 형태로 교육적인 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이선화, 1996), 연구 또한 '역할놀이'의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역할놀이(role play)는 대인간 갈등해결, 타인에 대한 분노, 적대적 태도, 공격적 행동의 감소(Greenberg, 1984), 대인간 갈등의 능동적 해결(이희경, 1989), 타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조희형, 1994), 도덕적 판단 능력 향상 및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양재희, 1989)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사회극과 심리극을 비교해 보면, 심리극이 주인공, 즉 개인중심인데 반해 사회극은 집단 전체가 주인공이고, 심리극은 치료적 측면이 강한 반면 사회극은 교육적 측면이 강

하다(Sternberg & Garcia, 1994). 즉 심리극은 보다 직접적인 개인 노출을 통해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사회극은 개인이 집단 속에 포함되어 좀더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는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Sternberg & Garcia, 1994). 이러한 차이점은 내담자들의 기본적 지각을 형성하여 상담과정에 반영되고 내담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과거의 실수와 현재 사회적으로 낙오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의 부재, 잘못된 양육방식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강화경험이 부족하므로 위축되어 있어 맘껏 웃어보고, 놀아보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극보다는 사회극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므로 좀더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탐색하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비행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과거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리극과 같은 개인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심리극과 사회극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어 왔을 뿐 비교 연구된 선행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의 이러한 차이점들을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내담자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담효과 요인과 집단과정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먼저,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상담효과 요인을 비교할 것이다.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적 특징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Yalom(1993)은 "상담효과 요인(therapeutic factor)"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담효과 요인은 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유발하는 상호작용(Yalom, 1993)을 말하는데, 적절한 변화의 조건과 상담기법이 전제가 되면, 상담효과 요인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Colijn et al, 1991). 따라서 상담효과 요인을 밝히는 것은 상담자의 기법 발전과 상담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전중국, 1995b; 천성문, 김명권, 1996).

집단상담 및 치료 문헌에서 경험적 증거를 지지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이충순, 유계준, 1984; 이후경, 유계준, 1987; 천성문, 이기영, 1992; 천성문, 김명권, 1996; Bloch 외, 1979; Colijn 외, 1991; Marcovitz & Smith, 1983), Yalom(1993)이 지적했듯이 집단상담의 유형, 집단의 구성 및 발달단계, 내담자들의 유형에 따라 상담효과 요인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집단상담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심리극에서 나타나는 상담효과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보편성, 자기이해, 실존적 요인, 정화, 통찰, 희망의 고취, 대인관계 학습 등이 두드러진다(김해열 외, 1992; 박진익 외, 1989; 이상열, 박민철, 1995; 고강호, 1996; Haluk, et al., 1993; Kellerman, 1985;

Holmes, 1992). 또한, 내담자의 한 유형인 비행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효과 요인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Long & Cope (1980)는 정화, 집단응집력, 대인관계학습, 자기이해 요인 등이, 천성문·김명권(1996)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보편성, 집단 응집력, 자기이해, 정화요인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고강호(1996)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하여 희망의 고취, 보편성, 실존적요인, 자기이해, 가족재구조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상담효과 요인과 더불어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두 집단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기성과, 즉 각 회기의 깊이(Depth)와 순조로움(Smoothness)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상담과정의 즉시적 성과와 최종 성과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상담과정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이상희, 1993). 여기서, "깊이(depth)"란 상담회기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그 회기에서 움직여진 정도와 정서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룬 것에 대한 지각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순조로움(smoothness)"이란 그 회기의 편안함, 안정감, 또는 내담자의 고통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지각된 편안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이고 구조화된 심리극·사회극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하

〈표 1〉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사회극 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제 목	준비단계	행동화 단계	통합단계
1	소개-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 별칭짓고 짝지랑 역할 바꾸어 소개	.	나눔
2	친밀감·신뢰감	집단이름 정하기 믿음놀이/ 활주로놀이	심리극(60) 사회극(60)	
3	역할 연기	팀별게임(손풀기, 이구동성) 동밀기/ 할수있어-할수없어	심리극(60) 사회극(60)	회기평가
4	중요한 인물	돼지-뽕 / 사랑합니다-왜요? social atom	심리극(60) 사회극(60)	
5	나의 성장	끝말 /역할 잇기 나의 과거	심리극(60) 사회극(60)	마무리
6	실존적 만남	유서쓰고 발표하기	심리극(60) 사회극(60)	
7	역할 탐색	따라하기 마술상점	심리극(60) 사회극(60)	(30)
8	가치관 탐색	가치관 경매 무인도	심리극(60) 사회극(60)	
9	나의 미래	이렇게 멋진 당신은 누구? 20년후의 나의모습	심리극(60) 사회극(60)	
10	새로 태어나기	재가 되어 날아가소서/새로태어나기 나의 이름 부르기/ 약속합니다.	.	

## 연구방법

는 상담효과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 한다. 셋째,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비행청소년들이 각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비교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의 차이점을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리극과 사회극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비행청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효과 요인을 찾아내어 이후의 프로그램 구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직업 전문학교(P소년원) 24명을 대상으로 이들 중 12명은 심리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12명은 사회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집단을 구성할 때, 비행차수, 비행유형, 수감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질집단으로 구성하였다.

### 2.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되는 심리극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 특히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이고 예방적 시각에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각 회기는 일반적으로 준비단계-행동화 단계-공유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효과 요인을 비교할 것으로 각 회기의 준비단계를 동일하게 구조화할 것이다. 행동화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주제는 심리극과 사회극의 특성상 미리 정해지지 않고 집단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매 회기마다 지금-여기(here and now)의 원칙 아래 가장 관심있는 내용이 역동적으로 선정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심리극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회기별 준비단계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표 1).

프로그램 실시는 본 연구자와 보조자 2명(남·여 각각1명), 이 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인 상담석사 1명(남)이 참여하였다. 이들 보조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3년 이상 심리극 활동경력을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진행을 함께 하였다.

### 3. 측정방법 및 자료처리

#### 1) 상담효과 요인

본 연구는 비교적 정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Yalom의 치유적 요인(therapeutic factors)이라는 용어를 상담효과 요인으로 고쳐서 사용한다. Yalom(1993)이 개발한 상담효과 요인척도는 전체 60문항으로 12개의 상담효과 요인별로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종국(1995a)이 번안하였으며 상담효과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Q-분류방법, 질문지형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형식을 취하여 각 문항은 1점(도움이 되지 않았다)에서 7점(매우 도움이 되었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상담심리전문가 2명과 교육학과 박사

과정생 1명과 함께 청소년문항으로 재 번안하여 검토하였다.

비행청소년들이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Yalom의 상담효과 요인을 각 집단별로 5회기 후와 10회기 후 총 2회 측정하였다. 먼저, 각 12개의 요인별로 이들의 합을 구하여 순위를 매겨서, 어떤 요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5회기 후와 10회기 후의 순위차를 알아보기 위해 Spearman의 순위상관( $R_s$ )를 이용하였고,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효과 요인의 순위차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계처리의 도구로서는 SPSS/PC+를 사용하였다.

#### 2) 회기평가 질문지

Stoles & Snow(1980)가 개발한 회기평가 질문지는 상담과정의 즉시적 성과와 최종 성과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써 상담회기의 깊이(depth)와 순조로움(smoothness)을 평가한다. 각각의 하위 척도는 다섯 쌍의 양극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고 한 척도는 7점척도로 두 하위척도는 35점이 최고 점수가 된다. 한국에서는 오경희(1986)와 최윤미(1988)가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정하였는데 오경희가 보고한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이다.

회기평가는 깊이와 순조로움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회기마다 이들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깊이와 순조로움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심리극과 사회극 각각의 집단 내에서 깊이와 순조로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각 집단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해 전-후반기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깊이와 순조로움에 있어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런 통계 처리의 도구로서는 SPSS/PC+를 사용했다.

## 결과 및 해석

### 1. 심리극

#### 1) 상담효과 요인

본 연구에서 심리극 프로그램을 총 10회로 실시한 결과, 다루어진 주제는 부모문제, 자신의 성격, 친구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였다. 본 프로그램의 행동화 단계에서 사용한 기법은 역할 연기, 역할 바꾸기, 이중자아, 탈출법, 감정표현, 미래투사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집단원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지

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발달단계를 고려해 5회기 후와 10회기 후 2회 측정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했다.

표 2를 보면, 5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자기이해, 실존적 요인의 순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였고 10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희망의 고취, 정화의 순으로 지각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극집단에서 중요하게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은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실존적요인, 자기이해, 희망의 고취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리극 5회기 후와 10회기 후에 집단원들이 도움받은 것으로 지각하는 요인들의 순위상관을 산출한 결과, 상관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표 2). 이는 심리극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요인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재구조화와 집단응집력은 5회와 10회 모두에서 1, 2위를

〈표 2〉 심리극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효과 요인 및 순위상관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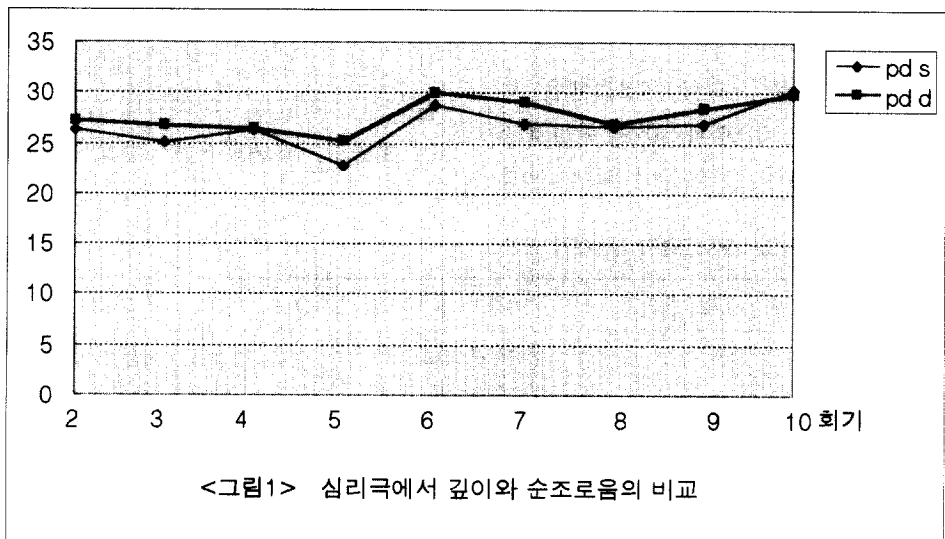
순위	5회기 후 (4.91/ N=10)	10회기 후 (4.87/ N=9)	전체 (4.89/ N=19)
1	가족재구조화(5.36)	가족재구조화(5.28)	가족재구조화(5.32)
2	집단응집력(5.30)	집단응집력(5.27)	집단응집력(5.28)
3	자기이해(5.22)	희망의고취(5.16)	실존적요인(5.05)
4	실존적요인(5.08)	정화(5.11)	자기이해(5.04)
5	보편성(4.96)	실존적요인(5.02)	희망의고취(5.03)
6	희망의고취(4.92)	동일시(4.93)	보편성(4.93)
7	이타주의(4.88)	보편성(4.89)	동일시(4.87)
8	동일시(4.86)	자기이해(4.84)	이타주의(4.80)
9	대인관계학습투입(4.72)	이타주의(4.71)	정화(4.78)
10	대인관계학습산출(4.66)	대인관계학습투입(4.58)	대인관계학습투입(4.65)
11	정화(4.48)	대인관계학습산출(4.33)	대인관계학습산출(4.51)
12	생활지도/안내(4.42)	생활지도/안내(4.07)	생활지도/안내(4.39)
Rs	.66 *		

\* p<.05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원자(social atom) 워밍업은 자신들의 가족과 소중한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2고, 심리극에서 가족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었고 자신의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을 통하여 더욱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집단의 전반부에는 자기이해, 실존적요인, 보편성 등이 상위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리극이 자신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집단원들 사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가족재구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5회기 후, 10회기 후에 드러난 결과에서 대인관계학습 투입, 대인관계학습 산출, 생활지도/안내가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대인관계학습 투입요인은 소년원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대인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활지도/안내요인은 연출가, 보조자들이 어떤 것을 지시하기 보다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집단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조화와 집단응집력 다음으로 희망의고취와 정화요인이 중요하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회기가 지날수록 점차 심리극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더욱 깊은 정서적 경험들을 하고 이로 인해 점차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2) 상담회기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 회기마다 심리극을 진행한 직후에 상담회기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10회기 동안의 심리극의 깊이와 순조로움에 대한 평가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심리극을 순조롭고 깊

이 있다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깊이와 순조로움의 평균차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71, p<.01$ ). 즉, 심리극 프로그램은 순조로움보다는 깊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극에서 정서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상담시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후반기를 차이점중 해보았을 때 깊이( $t=2.71, p<.01$ )와 순조로움( $t=2.97, p<.01$ )이 모두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이는 후반기로 갈수록 심리극 자체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사회극

### 1) 상담효과 요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극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심리극 프로그램과 같은 워밍업 단계를 경험한 뒤 집단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어려운 문제를 탐색하였다.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부모문제, 친구문제, 아버지 역할, 자신의 미래문제였는데 이는 심리극에 비해 미래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행동화단계에서는 역할연기, 역할 바꾸기, 이중자아, 양극자아, 탈출법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다중자아법이 많이 쓰였고 극에 참여한 인원이 많았다. 그런데 7회에서는 주인공의 감정이 너무 격하고 집단이 이에 대해 극을 하고자 하여서 부득이하게 주인공이 선정되고 심리극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집단원들이 도움 받았다고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표 4를 보면, 5회기 후에 상담효과 요인의 순위를 알아본 결과 실존적요인, 보편성, 집단 응집력, 가족재구조화, 희망의 고취 순으로 드러났고, 10회기를 모두 마친 후에는 보편성, 실존적요인, 가족재구조화, 이타

〈표 4〉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상담효과 요인

순위	5회기 후 (4.82/ N=9)	10회기 후 (4.83/ N=9)	전체 (4.84/ N=18)
1	실존적요인(5.56)	보편성(5.43)	실존적요인(5.46)
2	보편성(5.16)	실존적요인(5.35)	보편성(5.29)
3	집단응집력(4.84)	가족재구조화(5.07)	가족재구조화(4.94)
4	가족재구조화(4.82)	이타주의(5.00)	이타주의(4.83)
5	희망의고취(4.82)	자기이해(4.86)	자기이해(4.82)
6	정화(4.80)	동일시(4.82)	동일시(4.81)
7	동일시(4.80)	대인관계학습산출(4.78)	희망의고취(4.79)
8	자기이해(4.78)	희망의고취(4.76)	집단응집력(4.72)
9	대인관계학습투입(4.69)	대인관계학습투입(4.69)	대인관계학습산출(4.69)
10	이타주의(4.66)	집단응집력(4.60)	정화(4.68)
11	대인관계학습산출(4.60)	정화(4.56)	대인관계학습투입(4.68)
12	생활지도/안내(4.31)	생활지도/안내(4.07)	생활지도/안내(4.19)
Rs	.48*		

\*  $p<.05$

주의, 자기이해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극 집단에서 도움을 받은 상담효과 요인은 실존적요인, 보편성, 가족재구조화, 이타주의, 자기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5회기 후와 10회기 후에 집단원들이 도움 받은 것으로 지각하는 요인들의 순위상관을 산출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표 4). 이는 사회극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요인들의 순위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존적 요인과 보편성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존적 요인은 집단에서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나 부모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해들과 탄생과 죽음에 대한 워밍업 등을 통해서 도움이 된 것으로 지각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편성 요인은 사회극이 집단의 공통관심사에 근거하여 주제를 정하고 장면을 구성하여 탐색하므로 집단원들 간의 보편성요인이 크게 인지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5회기 후에는 집단응집력, 가족재구조화, 희망의 고취 등의 요인이 타요인에 비해 도움 받았다고 지각되었는데 Yalom(1993)이 지적하듯이 집단응집력과 희망의 고취 등의 요인은 집단의 전반부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이는 집단원들 간의 신뢰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집단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회기 후에는 보편성과 실존적 요인이 가장 우선시 되었고 그 외 다른 요인에 비해 가족재구조화, 이타주의, 자기이해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사회극에서 함께 문제를 탐색하고 거의 같은 비중으로 사회극에

참여하여 서로 도우면서 진행된 사회극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해석된다.

타요인에 비해 도움을 덜 받은 것으로 지각된 요인으로 생활지도/안내, 대인관계학습 투입, 대인관계학습 산출요인이 있는데 이는 집단원들 사이가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서로에 대한 평가가 역할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역할 또한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인 관계면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정화요인으로 심리극에 비해서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극에서 실행시간이 길고 워밍업시간이 길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공유시간이 적었고 집단회기가 더해 갈수록 자신에 대하여 워밍업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직접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상담회기평가

사회극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원들이 상담회기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담회기평가 질문지를 통해 깊이와 순조로움을 알아보았다. 사회극 프로그램의 상담회기평가 결과는 그림 2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10회기 동안의 사회극의 깊이와 순조로움에 대한 평가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극을 순조롭고 깊이 있다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심리극형식으로 진행되었던 7회가 가장 깊이 있게 평가되었고 순조로움과의 차이검증이 유의미한데 이는 사회극이 심리극보다 다소 깊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극 프로그램의 전체 순조로움과 깊이의 평균차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1.45$ ). 또한, 사회극 프

로그램의 전후반기의 깊이와 순조로움을 차이 검증 해 보았을 때에도 깊이( $t=1.18$ )와 순조로움( $t=1.20$ )은 모두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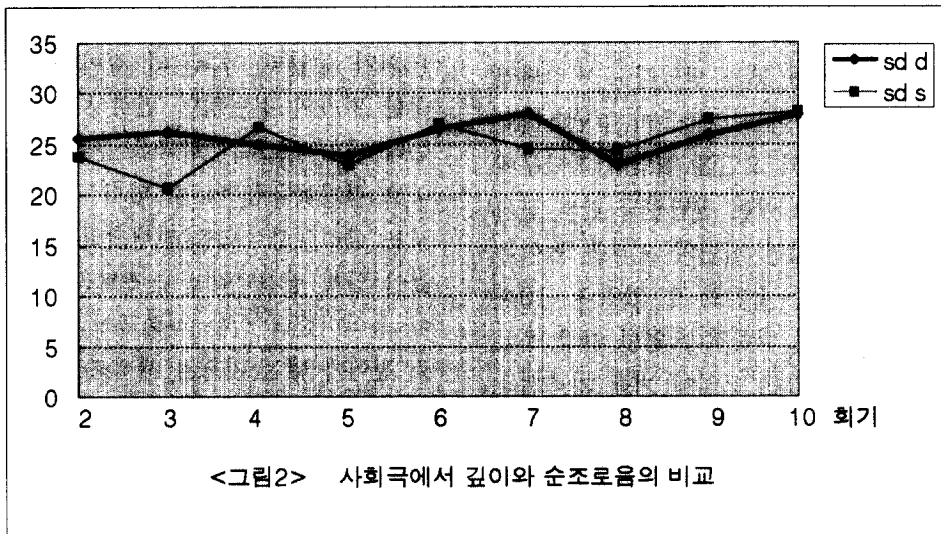
### 3. 심리극과 사회극의 비교

#### 1) 상담효과 요인

심리극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집단원들이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의 순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회기 후와 10회기 후에 측정된 순위를 비교해 보았다. 순위상관계수를 내보았더니 5회기 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R_s=.70$ ) 10회기 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R_s=.11, p<.05$ ). 즉 같은 위밍업으로 구성되었지만 심리극으로 진행한 집단상담과 사회극으로 진행한 집단상담에서 회기가 많아질수록 집단원들이 도움받는 것으로 지각한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기가 많아질수록 심리극과 사회극

의 상담효과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위차가 드러난 그 내용을 살펴보면, 5회기 후에 측정된 상담효과 요인은 심리극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가족재구조화, 보편성, 집단응집력, 실존적 요인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인관계학습 투입, 대인관계학습 산출, 생활지도/안내요인이 거의 비슷하게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요인이 상위에 있고 생활지도/안내가 최하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도움받은 것으로 지각한 요인들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심리극집단은 사회극집단에 비해 집단응집력, 희망의 고취, 정화요인들이 상위에 있고, 사회극집단은 심리극집단에 비해 보편성, 실존적 요인, 이타주의 요인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집단원들이 도움받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심리극 집단상담의 특성에 맞게



<그림2> 사회극에서 깊이와 순조로움의 비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노출하기 때문에 보다 집단원 간의 신뢰감이 높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깊이 경험함으로써 보편성과 정확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극집단상담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탐색할 문제를 정의하고 배역을 정하는 과정들이 보편성과 실존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 회기평가

그림 3은 심리극과 사회극의 깊이를 비교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심리극에 참가한 집단원들이 사회극을 참가한 집단원보다 깊이 있게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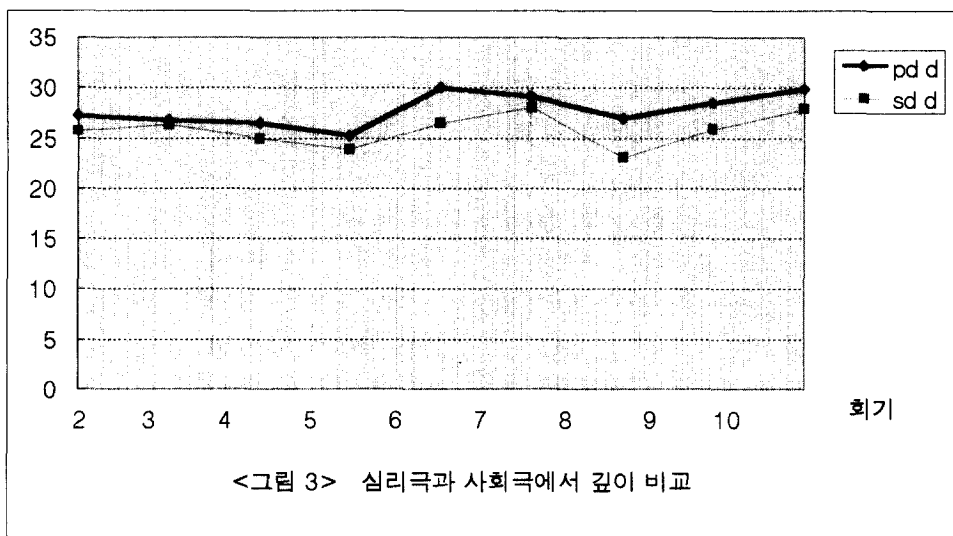
또한, 전반기와 후반기의 깊이에 관한 회기평가를 평균차를 검증한 결과, 전반부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깊이의 평가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t=1.13$ ), 후반부에서는 심리극 집단의 깊이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깊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t=3.22,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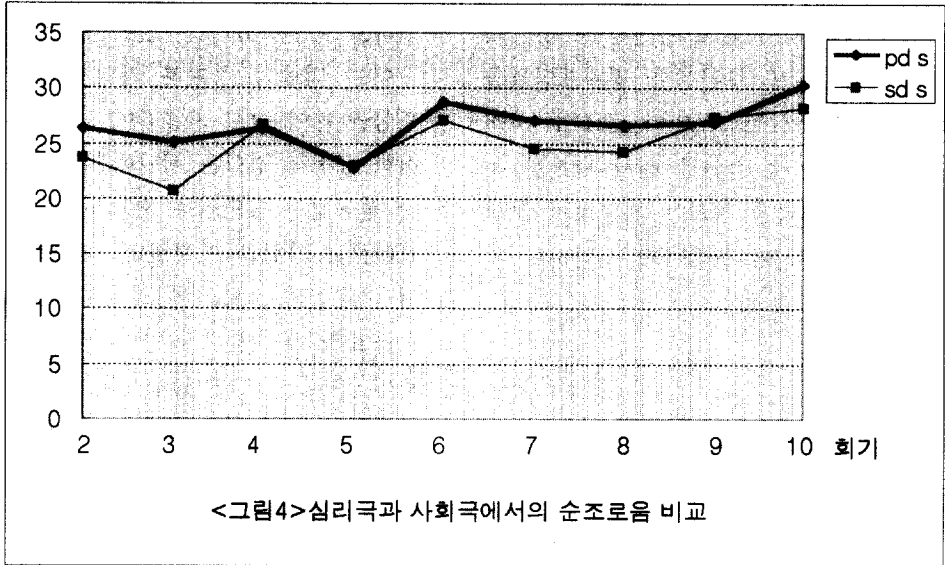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도 사회극에 비해 심리극을 깊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t=2.97, p<.005$ ).

이는 적극적 참여와 자기개방은 집단원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집단에 대한 응집력을 높여 성공적인 집단치료 결과를 이끈다(Yalom, 1993)는 가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심리극에서 주인공과 보조자아 역할에 참여한 정도와 치료효과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임계원·이근후, 1981)고 하였는데 심리극이 사회극에 비해 치료적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회기평가의 또 다른 하위구성요소인 순조로움에 대해서 심리극집단과 사회극집단을 비교하였다. 그림 4는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순조로움을 비교한 결과로 사회극에 비해 심리극 집단이 전반적으로 더 순조롭게 평가하였다.

또한, 전반기와 후반기의 순조로움에 관한 회기평가의 평균차를 검증한 결과, 전반부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순조로움의 평가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 $t=.66$ ) 후반부에서는 심리극집단의 순조로움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깊어 있다고 보고되었고( $t=2.64$ ,  $p<.01$ ) 전체적으로도 사회극에 비해 심리극을 순조롭게 평가하였다( $t=2.22$ ,  $p<.05$ ). 이러한 결과는 사회극에 비해 심리극이 순조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연출자가 심리극을 오래 지도한 반면 사회극 지도경험이 적고 둘째는 심리극은 일단 주인공이 정해지고 나면 편안하게 집단에 참가하는 반면 사회극은 문제를 정의하고 배역을 찾고 장면을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인지적 작업을 하기 싫어하는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극 집단원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동들이 많았으며 연기하기 힘들어하는 진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논 의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극 프로그램과 사회극 프로그램을 각각 실시하여 각 집단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을 알아보고 상담회기평가를 통해 집단상담 과정을 비교하였다. 이상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은 5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자기이해, 실존적 요인, 보편성 요인의 순으로 10회기 후에는 가족재구조화, 집단응집력, 희망의 고취, 정화, 실존적 요인의 순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Haluk(1993), Kellerman(198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재구조화를 자기이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볼 때 집단

상담의 초기에는 보편성, 희망의 고취가 중요하고 후기에는 자기노출, 자기이해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Yalom(1993)의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정화요인들이 심리극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Blatner, 1987)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응집력요인은 특히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천성문·김명권(1996)의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집단응집력요인은 비행청소년들이 또래환경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극 프로그램의 상담과정을 분석한 결과 깊이와 순조로움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보다 깊이 있고 순조롭게 평가하였다. 또한 깊이와 순조로움이 정적인 상관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족도가 함께 높은 것을 보여준다(이상희, 1993). 또한 심리극집단에서는 순조로움보다 유의하게 깊이있음을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심리극이 개인의 노출이 많고 감정표현이 많으며 치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되움이 되었다고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은 5회기 후에는 실존적 요인, 보편성, 집단응집력, 가족재구조화, 희망의 고취 요인의 순으로, 10회기 후에는 보편성, 실존적 요인, 가족재구조화, 이타주의, 자기이해의 순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사회극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김해열 등(1992)의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고 김명권·천성문(1996)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

한 결과 및 고강호(1996)의 연구에서 심리극을 실시한 대인 적대적 비행청소년 그룹의 결과와 순위가 비슷하다. 여기서 실존적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처럼 도피할 수 없는 현실과 직면하고 책임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편성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비행청소년들의 낮은 자아개념을 높이고 Marcovitz(1983)가 지적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환경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수치심이나 무가치한 느낌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수용하고 안도감을 얻게된다는 점에서 보편성 요인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넷째,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집단원들은 전반적으로 깊이있고 순조롭게 회기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회극 프로그램에서는 깊이와 순조로움의 평가가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깊이와 순조로움 사이의 차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극이 자기노출이 적어서 자유롭게 문제를 탐색할 수 있으므로 순조로움의 평가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는데 이것은 사회극 집단구성원들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 보는 것이고 각 회기마다 새로운 워밍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한 상담효과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순위차를 내어보면 5회기 후에 측정된 순위들 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10회기 후에 측정된 상담효과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워밍업을 동일

하게 구조화하고 각 집단상담에서 사용되어진 기법이 비슷하지만 심리극과 사회극, 즉 주인공이 개인인가 집단인가에 따라 도움받는다 고 지각하는 상담효과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내용을 보면 가족재구조화 요인과 실존적 요인이 함께 5 위 안에 위치한 반면, 심리극집단에서는 집단응집력, 희망의 고취, 정화요인이 사회극 집단에서는 보편성, 이타주의, 자기이해 요인이 우선시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극이 주인공 중심인데 반해 사회극은 집단 전체가 주인공으로 주제-상황 지향적이고, 심리극이 치유적이라면 사회극은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는 Moreno(1977)와 Sternberg & Garcia(1994)의 견해를 경험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런데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의 모형은 교육적이면서도 치료적인 모형이 바람직하므로(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a), 사회극과 심리극을 적절히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회기 평가를 비교해 보면 심리극집단이 사회극집단보다 깊이와 순조로움의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프로그램의 준비단계가 구조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집단을 같이 경험하지 않았으며 동질집단의 구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사회극보다 심리극이 깊이 있고 순조롭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극집단에서 집단의 합의에 의해 심리극의 형태로 진행된 회기가 있었는데 이 회기가 전 사회극 회기에서 가장 깊이 있게 평가되었으며 다음 회기가 다시 사회극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장 깊이 없게 평가되었음은 주목

할 만하다. 그리고 심리극집단에서도 전반부에는 주인공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인공이 선정되지 않고 역할연기의 형태로 진행된 회기가 있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극적인 방법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전반부에는 사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편안하게 집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집단원들이 충분히 위밍업이 되면 심리극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깊이있게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심리극과 사회극은 연출자, 즉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효과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더욱 연출자의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극과 사회극은 연출자의 성격이나 진행스타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연출자의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비행청소년이라고 광범위하게 잡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비행집단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인 특성이 다르므로 비행의 원인과 비행유형을 고려하여 비행집단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효과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집단상담의 상담효과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심리극과 사회극에서의 상담효과 요인에 대해 좀더 정교한 요인구조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은 각각 12명을 대상으로 10회기로 구성



되었는데 횡수와 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가장 적합한 기간과 횡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발달단계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비교하였는데 집단발달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본 연구는 상담효과 요인만을 비교하였는데 이외에도 심리극과 사회극에서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효과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심리극과 사회극의 상담효과 요인과 상담회기평가를 통해 집단상담의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상담의 성공과 실패요인들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두 상담기법들의 상이한 작용방식과 그에 따른 상이한 상담효과에 대한 변별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재희(1989). 역할놀이 수업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강호(1996). 심리극에서의 상담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일(1996).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 특수교육학회, 서울: 문음사.

김민정(1996). 심리극을 통한 사회성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석사학위논문.

김유광(1986).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극의 효과(3), 중앙의학, 38, 81-94.

김진남(1990). MMPI에 의한 비행소년의 특성과 비행성감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

위 논문.

김해열·김혜남·김유광(1992). 대학생 집단에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효과—TAT 및 Yalom의 집단치유인자를 통하여, 신경정신의학, 31권, 1호.

곽금주(1996).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 특수교육학회, 서울: 문음사.

박상미(1991). 심리극을 통한 집단상담에서의 공격성과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익·김혜남·김유광(1989). 입원한 청소년 정신분열증 환자에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28권, 1호.

법무부 보호국(1995). 소년보호행정

송종용(1994). 소년원 심리극 집단상담 사례, 빛나간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 대화의 광장

성금영(1983). 입원환자군과 대학생군에 적용된 심리극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용철(1996). 비행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 특수교육학회, 서울: 문음사.

안창일(1987). 문제학생의 성격과 선도방법,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 성원사.

양재혁(1995).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충동성과 대인간 갈등해결양식의 변화 연구, 한국의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인옥(1990). 행동장애와 비행청소년에 관한 일 연구 : MMPI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유종관(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2).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자아개념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정, 이경숙, 성금영(1986). 비행청소년에 적용된 심리극, 임상예술, 제2권

이상열·박민철(1995). 신경정신과 입원환자에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치유인자, 원광의과학, 11권, 1호.

- 이상희(1993). 상담 회기 평가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 이선화(1992).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1996). 청소년을 위한 역할 놀이(Role Play)와 사회극(Sociodrama)의 활용. 경남 학생 수련 교육연구회 연수자료 13-23.
- 이후경·유계준(1987). 단기집단 정신치료의 치유 인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권, 3호.
- 이혜원(1992). 비행청소년의 성격과 부모의 양육태도. 성신여대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회경(1989). 역할 놀이를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의 변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계원·이근후(1981). 심리극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권 3호 288-299.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 행동 유발 요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형사정책연구원.
- 전종국(1995a). 집단상담에서 상담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상담연구, 제6권 11호.
- 전종국(1995b). 집단상담에서 상담효과 요인의 연구경향과 과제. 발달상담연구, 제3권.
- 정혜승(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천성문·김명권(1996). 비행청소년 집단상담의 상담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7집.
- 천성문·이기영(1992). 집단상담의 치료요인에 관한 일 연구. 대학생활연구, 포항공대 학생생활 연구소 제6호.
- 청소년 개발원(1993). 청소년 문제론. 서울: 서원.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a). 비행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I 개발 연구.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b). 청소년 비행상담.
- 한상순(1990). 만성정신장애자의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활성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영희(1992). MMPI 척도상에 나타난 비행 청소년의 성격 특성의 경향.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형사정책 연구(1995). 소년범죄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Blatner, H. A.(1988). 「사이코드라마」, 이근후, 임계원(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 Blatner, H. A.(1987). 「사이코드라마의 토대」, 한국사이코드라마 학회 역. 서울: 중앙문화사.
- Bloch, S., Reibstein, S., Crouch, E., Holroyd, P. & Themen, J.(1979). A method for the study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257-263
- Colijn, S., Hoencamp, E., Sniijders, H. J. A., Van Der Spek, M. W. A., & Duivenvoorden, H. J.(1991). A comparison of curative factors in different types of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41(3), 365-378.
- Corder, B. F., Whileside, R., & Haizlip, D. T.(1981). A study of curative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31, 345-354.
- Deeth, A.(1970). Psychodrama crisis intervention with delinquent male drug users. Group Psychotherapy, 23.
- Haluk Özbay, Erol Göka, Emine Öztütü, Serpil Güngör, Gül Hincal(1993). Therapeutic factors in an adolescent psychodrama group.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 Holmes, P.(1992). The inner world outside. London: Routledge.

- Kellerman, P. F.(1985) Participants' perception of therapeutic factors in Psychodrama.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8, 123-132.
- Long, L. & Cope, C.(1980). Curative factors in a male felony offender group. *Small Group Behavior*, 11, 389-398.
- Marcovitz, R. J. & Smith. J. E.(1983). Patients' perceptions of curative factors in short-time group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33, 21-39.
- Mathis, J. A.(1980). Psychodrama and Sociodrama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17, 96-100
- Moreno, J. L.(1977). *Psychodrama Vol I, II, III*(4th ed). New York: Beacon House.
- Raubolt, R. R.(1984). Brief problem focused group psychotherapy with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 157-165
- Sidersky, S. C.(1984). The psychodramatic treatment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7(3), 117-125.
- Sternberg, P. & Garcia, A.(1994). *Sociodrama : Who's in your shoes?* Westport : Praeger Publishers.
- Torrance, E. P.(1975). Sociodrama as a Creative Problem Solving Approach to Studying the Futur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9, 182-95.
- Torrance, E. P.(1979). Developing Creativity Instruction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Sociodrama Model. *Creative Child and Adult Quarterly*, 4, 9-19.
- Weals, R & Johnson, E.(1969). Doubled and Vulnerable : A Sociodrama on Vocational Decision Making. *Personnel Guidance Journal*, 49, 198-205.
- Yalom, I. D.(1993).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 장성숙(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herapeutic Factors of the Psychodrama and Sociodrama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Hae-Sook Sim     Jung-Hee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to compare the therapeutic factors of psychodrama and sociodrama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to compare two groups.

To perform this study, 10 sessions of time-limited(two hours and half) group counseling were carried out for each group. And the subject was composed of 24 juvenile delinquents who were imprisoned in a P juvenile reformatory.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Yalom's Therapeutic factors and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SEQ). The Therapeutic Factors List of Yalom was given to members of two groups following the 5th and the 10th sessions. The SEQ were given at the end of each sess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rist, at the end of 5 session, the rank order for psychodrama's therapeutic factors were: ① family reenactment, ② group cohesiveness, ③ self-understanding and ④ existential factors. At the end of 10 session, the rank order were: ① family reenactment, ② group cohesiveness, ③ instillation of hope, and ④ catharsis. The result of SEQ shows the depth and smoothness during psychodrama were high. The score differences between the 5th and 10th sessions evalu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t the end of 5 session, the rank order for sociodrama's therapeutic factors were: ① existential factors, ② universality, ③ group cohesiveness, and ④ family reenactment. At the end of 10 session, the rank order were changed to ① universality, ② existential factors, ③ family reenactment, and ④ altruism. The result of SEQ, the depth and smoothness of the sociodrama process were high. The score differences between the 5th and 10th sessi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rank order of therapeutic factors at the end of 5 session,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rank order of therapeutic factors at the end of 10 session. The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The result of comparison for two groups' SEQ, the psychodrama shows Higher scores in smoothness and depth than sociodrama group.